여기 사람이 있다 12호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mbout.jinbo.net 02-795-1444
2009.5.27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퇴진, 민주시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가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정치적 타살임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립을 시켜주었던 그 검찰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권력의 주구가 되어 대통령이었던 그조차도 잔인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자살률 1위인 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가 죽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입시지옥에서 죽어간 학생들, 실업의 고통 속에서 청년실업자들이 죽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실업자로 만드는 경제정책 속에서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 박종태 열사가 그 가운데 죽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전국에서 삽질 소리가 요란한 나라, 대운하 건설을 4대강 정비로 호도하면서 끝내 난개발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중산층조차도 빈곤층으로 만드는 토건국가에서 용산 철거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안탄압의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그나마 이 나라에 허용되어 왔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도 틀어막고 있습니다. 선거로 들어선 정권이지만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정권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명박 정권이 계속되는 한,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의 나라, 1%만을 위한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단 한 시간도 경찰과 검찰의 폭력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정권,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해야 합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죽거나 죽은 듯이 살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모두 일어나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길에 설 것인가 중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장례조차 못 치르고

용산에서 이 나라 국민 6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 5명은 철거민들이었습니다.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끝내 살기 위해 망루를 짓고 올라갔던 그곳에서 특공대에 맞아죽고,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 우리가 이명박 정권의 소수 부자들과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을 그대로 둔다면 언젠가 내게도 겪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웃들과 인간적인 정을 나누며 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사람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소수 부자들만 배불리는 그런 재개발을 이젠 중단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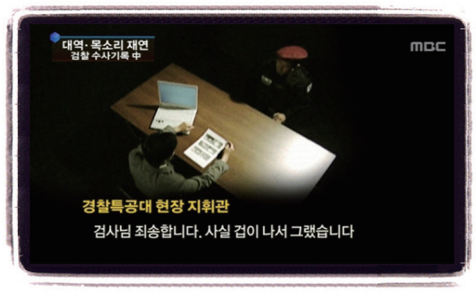
억울하게 죽어간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한대성, 윤용헌 열사…이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철거민은 유죄, 경찰은 무죄'로 결론지은 검찰을 심판합시다. 살아 있는 권력-검찰과 경찰의 공안탄압을 물리칩시다. 전 대통령조차도 죽게 만든 이명박 정권과 그 주구들인 경찰권력과 검찰권력을 심판하지 않고는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항쟁에 나섭시다. 이제 우리 눈물을 닦고 모두가 손에 손잡고 일어설 때입니다. 5월 30일 범국민대회로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MBC PD수첩으로 본 3000쪽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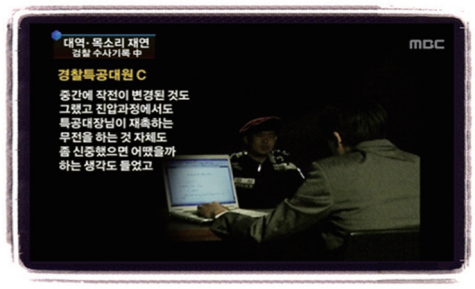
▲ 지난 5월 19일, 'MBC 피디수첩' 방송

▲ 검찰은 1월 19일이 도심테러 상황이라, 빠른 진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일 상황에 대한 경찰의 다른 진술들을 숨기고 있다.

▲ 검찰이 발표한 19일 상황과 다른 진술들



▲ 경찰특공대가 진술을 번복한 내용이 3천 쪽에 들어있다.



▲ 진압작전 명령이 갑자기 변경되었다는 경찰특공대의 진술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감추는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지난 1월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셨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은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라는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희생자이자 피해자인 우리의 이웃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웠습니다. 경찰이 불법용역업체와 합동으로 벌인 명백한 불법, 과잉진압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정부는 용산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주요 간부를 수배, 구속하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였고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통한 언론 통제까지 벌여왔습니다.

용산참사와 관련 구속된 철거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나, 검찰이 수사기록 1만 여 쪽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공개 자료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사기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명령했으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시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나라의 사법부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공개 3000여쪽'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의 핵심 지위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청 기동단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진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거민과 경찰의 죽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경찰이 건설재벌과 불법용역업체와 결탁하여 철거지역에서 어떠한 폭력을 자행하는가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진실을 감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용산 참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다 나중에 공개된 500쪽에 담긴 경찰 진술내용

경찰	진술 내용
특공대 1제대장 신아무개씨 (2차 조서)	"검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직원들을 망루 내부로 들여보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 후에야 시너를 창밖으로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특공대 1제대장 신아무개씨 (3차 조서)	"농성자들은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의도적으로 도로 쪽으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로 쪽으로 화염병이나 벽돌을 던진 것은 그 다음날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처음 보았습니다."
특공대 1제대장 신아무개씨 (4차 조서)	"이후 화재의 원인이 경찰 쪽에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도 있게 되자, 서로 경험한 내용을 대화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화재 원인이 농성자 쪽에 있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공대 2제대장 강아무개씨 (2차 조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 소화장비를 준비했지만, 이 사건처럼 시너 같은 다량의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공대원 안아무개씨	"망루 3층까지는 시위대가 망루 내부에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하는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함께합시다!

- 참사 현장 농성단 지지방문과 현장분향소 조문을 함께 합시다.
- 매일 저녁 7시 용산참사현장의 추모미사와 촛불추모제에 함께합시다.
- 매주 토요일 용산현장 및 서울도심에서 있는 범국민추모대회에 함께합시다.
- 유족돕기와 부상자 병원비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합시다.

국민은행 295401-01-156716 (이종회)

유가족까지 연행하는 패륜정권

살인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4가 재개발조합은 강제철거를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참사 당시 용역들이 물포를 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건물의 철거를 위한 펜스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물 역시 남일당과 마찬가지로 증거보존건물로서 이를 철거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가족과 전철연 회원, 농성 참가자들은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깡패들은 유가족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들의 철거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상림 열사의 부인인 전재숙 여사를 강제 연행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용역깡패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가족을 연행한 것은 패륜적인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던 이상림 열사의 장남 이상연씨 마저도 연행하여 호송차에 감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과 시민들을 7명이나 강제 연행해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막가파 탄압에 묻지마 연행까지 생존권을 주장하는 서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저항의 싹을 뿌리뽑겠다는 이명박 정부, 이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항의 중인 고 이상림열사의 며느리 정영신 씨와 문정현 신부, 전철연 회원